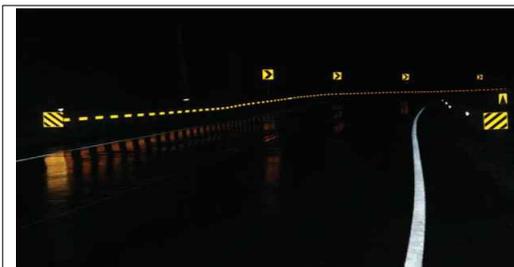
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9월 25일(금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도로관리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오수영, 사무관 남궁부, 주무관 정규효 • ☎ (044) 201-3915, 3916 	
	경찰청	교통운영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홍석기, 경정 조재형, 경위 김기현 • ☎ (02) 3150-2653, 0618 	
	한국건설 기술연구원	인프라안전 연구본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석연구원 이문섭, 임재규 / 전임연구원 김연태 • ☎ (031) 910-0690, 0572, 0084 	
	한국도로공사	교통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통운영부장 김영식, 환경연구실 부장 이창근 • ☎ (054)-811-2620 / (031) 8098-6382 / 	
보도일시		2020년 9월 28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27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“비오는 밤에도 차선이 잘 보이는 안전한 도로” 관리·강화 - 차선휘도 디지털 관리시스템 도입, 전수조사 통해 차선 시인성 향상 -

- 정부가 이용자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고속국도, 일반국도의 차선 휘도(밝기) 전수조사를 실시하고,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야간 및 우천 시에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관리를 강화한다.
 - 그간, 일부 고속국도, 일반국도에서 차선의 마모나 퇴색 등이 발생하여 야간이나 빗길 운전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다.
 - * 야간 교통사고 위험도 차선 반사성능에 따라 약 3배 증가('15, 대한교통학회)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차선 휘도 전수조사 및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올해까지 구축하여 시인성 부족구간 등 도로환경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로 차선 보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.
 - 차선 휘도 전수조사를 위해 이동식 조사 장비를 기존 10대에서 24대로 대폭 확대하였으며,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를 활용한 조사결과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(DB) 기반으로 관리, 효과적으로 유지보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.

- 또한, 차선회도 조사 및 보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도로관리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 TF를 통해 「차선투색 유지관리 매뉴얼」을 제작·배포할 계획이다(9.29)
 - 「차선투색 유지관리 매뉴얼」은 장비 활용, 회도조사 방법, 교통 상황별 적정 보수 공법 등 도로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로 구성하였다.
 - 아울러, 도로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.
- 이와 함께,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비 올 때 잘 보이는 우천형 차선의 시범 시공을 확대한다.
 - 고속국도 중부내륙선, 영동선 등 10개선 총 109km에 대해 고반사 유리알 및 돌출형 차선 등을 활용한 우천형 차선을 시공하고,
 -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, 교통상황 별로 가장 적절한 차선 도색이 시행되도록 매뉴얼에도 개선 반영할 계획이다.



< 야간 시인성 강화 >



< 5종 돌출형 차선 예시 >



-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“유지보수는 정확한 상태 파악이 핵심이며, 차선투색에서도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보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” 이라면서,
 - “국민의 안전 뿐만 아니라 향후 자율주행 등 미래 자동차 운영에도 차선투색 관리가 중요한 만큼, 보다 잘 보이는 차선이 조성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남궁부 사무관(044-201-391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